



7 중문천 학술 탐사

옛 문헌 속의 중문마을과 중문천

김영란

민속자연사박물관

중문천은 현재 서귀포시 중문동을 관통해 흐르는 하천이다. 중문동은 1416년(태종 16) 제주지역을 제주목(濟州牧)·정의현(旌義縣)·대정현(大靜縣) 등 3개 군현으로 구획할 때부터 서귀읍 일대가 정의현에 속했던 것과는 달리 대정현에 편제되었던 지역이다.

중문동이 조선시대 대정현에 속했음은 여러 고지도(古地圖)¹⁾와 읍지(邑誌)에서도 확인된다. 1702년 제작된 『탐라순력도』〈한라장축〉에 천제담(天帝潭)과 함께 중문(中文)이

1) 본 원고에 실린 고지도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1996년에 제작한 『濟州의 옛地圖』의 사진을 재인용하였다.



사진 1.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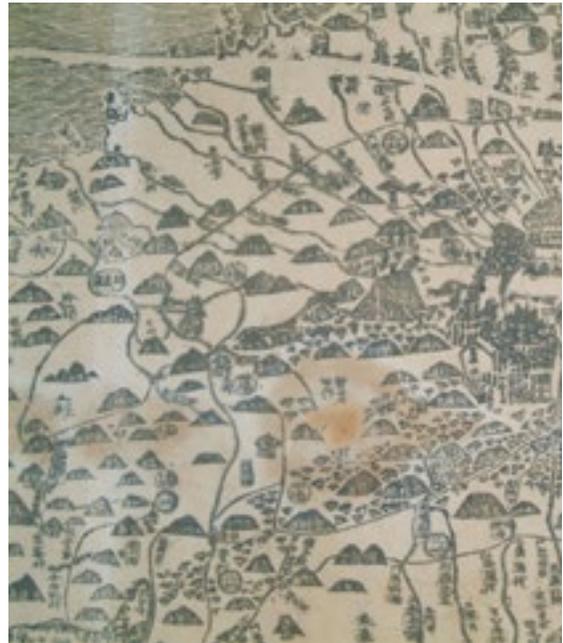


사진 2. 탐라지도병서

표기되었으며, 1709년에 제작된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에서는 중문촌(中文村), 천제담과 함께 원(院)이 기재되어 있다.

중문은 1700년 전반 『제주지도』, 1770년대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總地圖)』에도 모두 “中文村”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800년대 제작된 지도들에서는 “中文村”이 아닌 “中文里(혹은 仲文里)”로 표기가 바뀌고 있다. 곧 1872년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와 『대정군지도(大靜郡地圖)』, 1899년 『대정군읍지(大靜郡邑誌)』〈대정군지도〉에 “중문리”로 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정군읍지』〈대정군지도〉에는 中文里, 東中文里, 上文里가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村에서 里로의 변화는 면리제(面里制)의 확립에 따라 기존의 자연촌(自然村)이었던 중문촌이 리(里)라는 행정체계로 개편되면서 표기가 중문리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780년대에 편찬된 『제주읍지』에는 중문이 대정현 좌면(左面)의 10개의 리(里)중 하나로 민호(民戶)가 154호이며 남자가 303명, 여자가 431명으로 되어 있다. 당시 중문리와 인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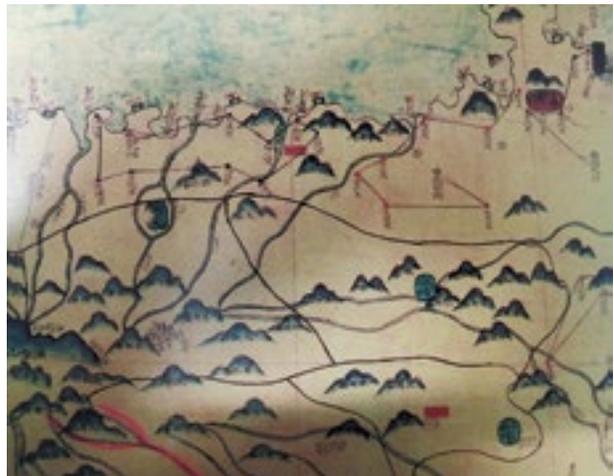


사진 3. 제주삼읍전도

해 있는 대포리의 민호가 75호, 남자가 105명, 여자가 193명, 하원리의 민호가 44호, 남자 81명, 여자 131명, 석송리의 민호가 51호, 남자 90명, 여자 134명, 강정리의 민호가 96호, 남자 199명, 여자 257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중문리는 이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을이었고, 따라서 19세기 후반에 가서는 앞서 <대정군지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문리, 동중문리, 상문리로 분리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문원(中文院)인 경우 1700년경의 『전라남북도여지도(全羅南北道輿地圖)』와 1750년경의 『해동지도(海東地圖)』에서 원사(院舍)의 표기가 나타나며, 1899년의 『제주군읍지』 <제주지도>에는 院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 원의 존재는 『제주읍지』와 『제주대정정의현지』에서 그 실체가 확인되는데, 『제주읍지』 <대정현지> 역원(驛院)조에 따르면, “원은 을사년에 동쪽으로 35리에 새로 설치되었으며, 천지연 폭포 근처 7, 8소장 둔마의 점락처”²⁾라고 하였다. 또한 『제주대정정의현지』 <대정현> 역원조에는 ‘중문원(仲文院)’이 현(縣) 동쪽 35리에 위치해 있는데 곧 점소(點所)라고 하였다.³⁾ 여기서 을사년(乙巳年)은 원이 최초로 등장하는 지도의 제작 연대가 1700년경인 것을 감안한다면 1700년(경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665년(을사)으로 추측되며, 중문리가 당시 국영목장의 하나인 8소장과 경계가 접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중문원은 국영목장의 말을 말장부(馬籍)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파악했던 점마처(點馬處)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중문마을은 해방 후인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가 실시되면서 제주도 남제주군 중문면 중문리가 되었으며, 1981년 7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되어 서귀포시로 승격하게 되자, 중문리는 대포리·하원리·회수리를 관할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이 되었다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중문마을은 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이 되었다.

한편 현재 중문천이라 불리는 명칭은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6세기 중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18세기 초반 『담라지』에는 ‘색달천(塞達川)’으로 대정현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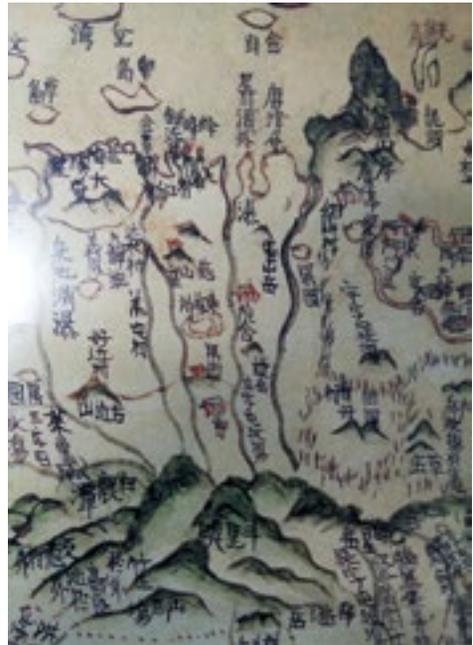


사진 4. 해동지도

2) 院 乙巳新設于東距三十五里 天池淵邊爲七八所屯馬點烙處(『제주읍지』<대정현지> 역원조)
3) 驛院 仲文院 在縣東三十五里 卽點所(『제주대정정의현지』<대정현> 역원조)

쪽 35리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외 19세기 후반 『대동여지도』, 『동여도』, 『대정군읍지』에서도 색달천만이 나타난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해동지도』와 『제주삼읍도 총지도』, 19세기 중반 『탐라지도병지』, 19세기 후반 『대정군지도』에는 “성천(星川)”으로 표기되어 있다. 곧 단편적이지만 앞서 살핀 기록들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 중문천은 최초에는 색달천으로 불렸지만 16세기 이후 색달천과 성천이라는 명칭이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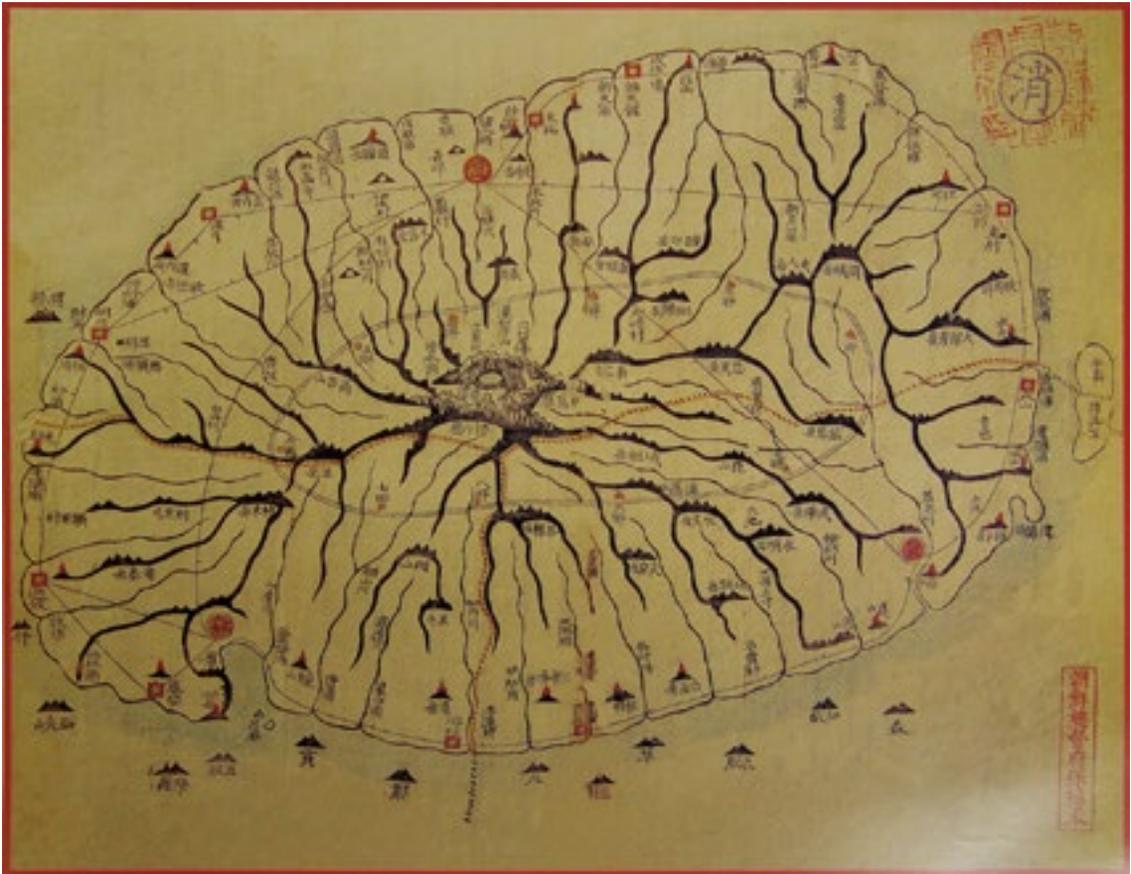


사진 5. 대동여지도